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청장 전근표)이 성장동력산업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가경제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형·생산적 중소기업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2008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지방 중소기업은 3년간 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원대상기업이 경영예로를 겪는 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의 자금편의도 최대한 지원받게 된다.

다만,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거나,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돼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상 세무조사 유예기간 만료 전이라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정지원대상은 2006년에 고용이 증가했거나 고용증대계획(예정)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내국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올해 생산라인 증설,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연평균)가 지난해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최소한 10명 이상 신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한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중기청, 여수·고흥 태풍피해 기업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태풍 '예유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여수시와 고흥군이 완도지역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피해복구 지원자금은 ▲특별경영안정자금=업체당 10억원 한도(1년거치 2년상환) ▲소상공인지원자금=업체당 5천만원 한도(1년거치 4년상환) ▲구조개선(시설복구지원)자금=업체당 30억원 한도(3년거치 5년상환) 등이다.

또 보증기관의 특별보증금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급수수료도 현행 1.0% 수준에서 0.1%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무더위에 돈이 줄줄 샌다

1도 오를때마다 하루 215억원 소비

여름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전력이 하루 2억 8천715만KWh 더 필요하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215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경제지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부터 8월10일까지 기온과 전력사용량, 봄·가을 전력소비량을 토대로 무더위 때문에 추가로 추가되는 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7월31일은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무더위가 본격적인 시점이고, 8월10일은 오후 3시 전력사용량이 5천724만2천KWh로 우리나라 전력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날이다.

피크타임(최대 전력 사용시점)인 오후 3시를 살펴보면 8월 10일(33.7도)은 7월 31일(31.7도)보다 2도 높았으나 소비전력은 약 910만KWh나 증가했다. 1도에 455만3천KWh가 올라 전력요금으로 환산하면 34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사용량은 새벽 6시가 최저점으로 3천404만2천KWh를 기록했다. 이때부터 전력사용량은 온도 변화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 낮 12시에는 5천210만KWh까지 치솟았다.

한편 분석기간에 270개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해 쓴 연료비는 2500억여 원에 달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 로도복권 (제193회) | | 팝콘복권 (제16회) | |
|--------------|-----------------|--------------|--------|
| 당첨번호 | 2등보너스 숫자 | 등위 | 당첨금(원) |
| 061418263639 | 13 | 1등 | 10억 |
| | | 3등 | 276765 |
| | | 3등 | 276766 |
| | | 2등 | 5억원 |
| | | 3등 | 276764 |
| 1등 | 6개 숫자 일치 | 3등 | 1천만원 |
| | |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 |
| 2등 |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 4등 | 1백만원 |
| | | 5등 | 1만원 |
| | | 각조 | 21335 |
| 3등 | 5개 숫자 일치 | 5등 | 1만원 |
| | | 6등 | 2천원 |
| | | 각조 | 46 |
| 4등 | 4개 숫자 일치 | 7등 | 1천원 |
| | | 각조 | 31 |
| 5등 | 3개 숫자 일치 | | |
| | | 각조 | 1 |
| | | 각조 | 6 |



광천동 '마천루시대' 연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일대가 6천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 개발을 갖춘 도심속 고급 주거지로 거듭난다.

특히 광천동 재개발은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벽산건설, 대우건설 등 7개 국내 유력 건설사들이 공동 참여할 전망이다. 서프리미엄 아파트단지를 앞세운 '신광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13일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에 따르면 오는 17일 남구 구동체육관에서 열리는 주민총회를 통해 GS건설 등 7개 건설사로 구성된 '빛고을 새천년사업단'의 광천동 재개발 시

13만평 일대 아파트 6,162세대...15~35층 재개발

국내 유력 7개 건설사 공동 시공...17일 주민총회

공사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빛고을 새천년사업단'이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2010년 2월 착공, 2010년 3월 분양, 2013년 준공 및 입주 등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추진위와 사업단은 오는 9월께 도급계약 체결한 뒤 오는 2007년 12월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2008년 9월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합원 2천250명에 대한 이주 및 철거 절차는 빠르면 오는 2009년 1월께 진행될 예정이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도심속 낙후지역으로 꼽혀온 광천동 일대가 고급 주거지대로 거듭나게 된다. 광천동 663-2번지 일대 12만8천

979평 부지에 지상 15~35층, 지하 2층 규모로 총 6천162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특히 광천동 지역의 경우 고속터미널 인근에 위치해 있는 데다 광천동과 북구 운암동을 잇는 광암고가 단지 중심을 통과하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 광주의 관문인 동문 IC와 서광주 IC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으며, 단지 입주 직전인 오는 2012년에는 광주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밖에 사업단은 사업부지를 '녹색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의 95%

를 지하로 배치하는 한편 나머지 지상 공간을 모두 녹지로 꾸밀 계획이다. 또 입주 시기에 맞춰 초등학교 2개를 비롯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이 신설된다.

새천년사업단 관계자는 "광천 재개발이 국내 최대 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광주 지역발전과 향후 분양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의 사업단을 발족하게 됐다"며 "사업추진에 클수록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주택대출금리 일제히 인상

시중銀, 콜금리 상승분 반영...서민가계 부담 가중

시중은행들이 지난주 콜금리 인상과 양도성에급증서(CD) 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이번주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서민가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13일 한국은행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주 간 CD금리는 연 4.64%에서 4.70%로 0.06%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03년 3월28일의 연 4.73% 이후 3년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CD금리와 기계적으로 연동돼 있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14일부터 일제히 인상 적용됐다. 국민은행의 이번주 주택담보대출금

리는 연 5.52~6.72%로 지난주의 5.45~6.65%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은 지난주 목요일(10일)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주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폭이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가장 크다.

신한은행의 이번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5.78~6.78%로 전주의 5.74~6.74%에 비해 0.04%포인트 올랐고 우리은행의 주택대출금리도 연 5.38~6.68%로 전주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전주 평균 CD금리를 기준으로 잡는 하나은행의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는 연 5.69~6.79%로 전주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98%가량이 변동금리 대출인데다 변동금리 대다수

| 은행 | 지난주 | 이번주 | 인상률 |
|----|-----------|-----------|------|
| 국민 | 5.45~6.65 | 5.52~6.72 | 0.07 |
| 신한 | 5.74~6.74 | 5.78~6.78 | 0.04 |
| 우리 | 5.34~6.64 | 5.38~6.68 | 0.04 |
| 하나 | 5.66~6.76 | 5.69~6.79 | 0.03 |

가 CD금리에 연동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주 이용객인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데 있다. 실제로 CD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가 지난해 10월이후 10개월만에 5차례에 걸쳐 1.25%포인트나 치솟아 지난해 10월이전에 1억원을 대출 받은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70여만원 가량 더 늘어나게 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주로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들의 충격이 훨씬 클 것이다"고 전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월 소득 500만원 넘는 가구 부쩍 늘어

8가구당 1가구꼴·매달 280만원 저축 노력

한 달에 500만원 넘는 돈을 버는 가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2인 이상 전국가구 가운데 월소득(세전소득)이 500만원대인 가구는 5.70%,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6.62%로 나타났다.

월소득 500만원을 웃도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2.32%를 차지, 8가구 중 1가구가 해당한다는 셈이다. 이 비율은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7.34%, 2004년 8.88%, 2005년 10.05% 등으로 조금씩 증가했는데 올해는 증가폭이 더욱 컸다. 이들 고소득가구는 평균적으로 3.7명 정도의 가족 수에 가장의 나이는 46세였다.

이들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살펴보면 월소득 500만원대인 가구에선 160

만원대,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선 280만원 정도의 저축 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00만~550만원의 가구의 경우 평균 521만원의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송금 등 비소비지출로 70만원이 나가고 290만원을 소비지출에 써 161만원 정도가 남는다.

550만~600만원의 가구는 소득 571만원에서 비소비지출로 82만원이 나가고 319만원을 소비에 지출해 170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월소득이 600만원을 넘는 상위 5%대의 최고소득층은 평균 월소득이 847만원으로 이중 124만원을 세금 등으로 내고 절반인 440만원을 쓰고도 한 달에 283만원이 남는다. 연간으로는 명목상 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

연필뉴스

1,300선 안팎 박스권 횡보

외국인 투자, 중·소형주 매입 지속 여부 관심

■이번주 시장 전망

이번주 증시는 박스권 횡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패턴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바뀌는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은 248조3천324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에 비해 4.51% 감소했으며, 올들어 외국인 투자패턴도 중·소형주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대형주(시가총액 100위 이상) 시가총액은 222억7천145억원으로 8개월여 사이에 5.24%가 줄어들었다.

반대로 외국인의 중형주(시가총액 101위~300위) 시가총액은 9조2천124억원으로 6.02%가 늘었고 소형주(301위 이하) 시가총액은 1조1천119억원에서 1조2천657억원으로 14.95%나 증가했다.

대형주 시가총액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대형주를 선호하는 외국인의 투자패턴과는 다소 동떨어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대형주 시가

총액 비중은 지난해 12월말 42.74%에서 현재 41.09%로 1.65%포인트 낮아진 반면 중형주 시가총액 비중은 14.51%에서 16.82%로 2.31%포인트, 소형주 시가총액 비중은 6.12%에서 7.44%로 1.32%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실제 이 기간 외국인 자본률 증가 상위 20개사 가운데 증형주는 쌍용(68.77%포인트 증가), 현대엘리베이터(29.70%포인트), 솔로몬저축은행(19.62%포인트), SK케미칼(14.26%포인트) 등 9개 종목에 달했다.

또 소형주 중에서는 보령제약(21.94%포인트), 샘표식품(17.31%포인트), 넥센(12.93%포인트), 대한제당(11.34%포인트) 등 6개 종목이 포함됐고 대형주는 5개 종목에 그쳤다.

메리츠증권 서정광 투자전략팀장은 "올들어 미국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한국시장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형주를 주로 처분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중·소형주 편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산업, 터미널-리조트 사업 분리

건설·고속운송사업 주력

금호산업은 터미널(임대업 포함) 사업부문과 리조트 사업부문을 분할한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물적분할을 통해 금호터미널(가칭)과 금호리조트(가칭)를 신설하고, 신설법인의 자본 100%를 소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에는 건설 사업 부문과 고속운송사업 부문만 남게 됐다.

금호산업은 각 부문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독립경영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분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분할 이후 금호산업은 자산(2조7천867억원)과 부채(1조7천326억원)가 각각 3천270억원씩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195.4%에서 164.4%로 낮아지게 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항후 금융비용도 감소해 경영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對日 무역적자 사상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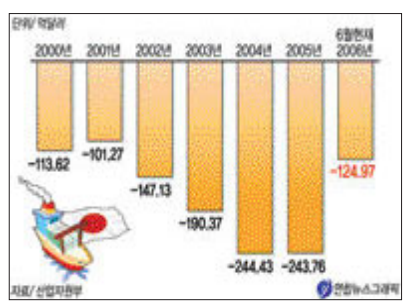
상반기만 125억불 달해

올해 들어 대일 무역적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일본에 대한 수출은 129억7천700만달러에 그쳤지만 수입은 254억7천400만달러에 달해 달해 적자폭이 124억9천700만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 70억3천700만달러의 1.8배이고 지난해 동기의 대일 무역적자 119억2천200만달러보다 4.8% 늘어난 규모다.

■대일 무역적자 추이



올해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는 연간 기준으로 일본과의 무역에서 가장 적자가 많았던 2004년의 상반기(121억5천100만달러)보다 많고 추세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대일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 및 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동남상조 | 경리 사원 | 초대졸/경력3년 | 1400~1600 | 08/15 | 055-291-6666 |
| 한국알프스(주) | [광주/경기]각분야 신입 및 경력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8/16 | 062-950-2113 |
| 인포드림넷(주) |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사원 | 고졸/경력무관 | 1400~1600 | 08/17 | 062-236-0217 |
| (주)한국이엠에스 | 생산직 사원 | 고졸/경력무관 | 1200~1400 | 08/17 | 062-514-6464 |
| (주)한샘 | 대리점 영업사원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8/18 | 062-383-1601 |
| 후지제록스(호남)주 | 후지제록스(호남)주 Service Engineer | 고졸/경력무관 | 1600~1800 | 08/18 | 062-365-3500 |
| (주)호원 | 사업부별 관리직 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8/20 | 062-945-8311 |
| (주)남도계측제어 | 사무직 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8/20 | 062-954-4527 |
| (주)해니방송 | 케이블TV A/S직원 | 고졸/경력무관 | 1600~1800 | 08/20 | 011-605-8660 |
| (주)컴팩아시아 | 전기자동화 설비 | 초대졸/경력2년 | 회사내규 | 08/20 | 070-7018-0077 |

(광주주최리야 512-6210 제공)